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출 제조업 확대

제조업 30.2% 전국 평균보다 낮아... 업체 자금조달 어려움

도소매업 14.5%, 농림어업 10.4%로 평균보다 높아

한은, 중기 금융지원 현황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특정 업종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9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은행 대출의 경우 도소매업 14.5%, 농림어업 10.4%로 이들 산업의 대출 비중은 전국 평균치인 6.0%, 5.7%에 비해 각각 8.5%, 4.7% 높았다. 반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30.2%로 전국 평균 37.8%에 비해 낮았다.

이들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과 비교하면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대출비중은 높은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액도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이 전체의 75.6%를 차지해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지원 금리도 전국평균 보다 높았다.

광주·전남 예금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때 적용하는 산업별 대출금리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2013년 5.11%에서 2014년 4.81%로 하락하긴 했지만 전국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4.6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대출 의존도도 높아 자금사정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에 비해 주식·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낮은 반면 부채 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3년 기준으로 각각 178.34%와 42.12%로 전국 평균(159.09%, 36.59%)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도 낮아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특정 업종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고, 신용보증과 정책자금도 다양한 업종에 걸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주력업종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관광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지원 규모도 작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지원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효과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중기 대출 실적 우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기술력, 성장성, 경영능력 등 비재무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심사 기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탈처럼 웃어봐요” 2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열린 ‘탈, 희망의 메시지’ 전시회에서 아이와 부모가 전시된 탈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내달 25일까지 계속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1.02 (-10.56)
- ▼ 금리 (국고채 3년) 2.00% (-0.01)
- ▼ 코스닥 593.12 (-1.27)
- ▲ 환율 (USD) 1093.90원 (+9.40)

금호아시아나-IBK 사모펀드

금호고속 매입 놓고 정면 충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IBK투자증권(케이스트) 사모펀드(PEF·이하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호고속을 팔려는 사모펀드와 되사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가격을 둘러싸고 벌여온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29일, 금호고속이 금호고속 경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직원들이 만든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씨와 박봉섭(케이스트파트너스)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할 상태다. 사모펀드는 구사회가 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대표이사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3월2일 이후 금호고속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

이 소멸되면 금호고속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 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자 매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모펀드가 대우건설 주식(5100만주)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표이사 해임, 사무실 점거 시도 등 무리수를 두며 무모하게 고가 매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주가가 지난해 7월 1만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 대다수 투자자는 수차례 매각을 건의했으나 사모펀드 측은 이를 무시하고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는데 이후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했다고 금호아시아나는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영인권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매입하지 않으면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1838억원의 후순위 지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트렉스타 ‘해즈프리 신발’ 아웃도어박람회 2관왕

황금상·아시아제품 대상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의 ‘해즈프리 신발’이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박람회인 ‘2015 ISPO’(International Trade Show for Sports Equipment and Fashion)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트렉스타는 2015 ISPO 참가 브랜드 가운데 최고의 제품을 가리는 ‘ISPO 어워드’ 심사에서 ‘해즈프리 신발’이 황금상(Gold Winner)과 올해의 아시아제품 대상(Asian Product of the year)을 동시에 수상하게 됐다. 29일 밝혔다.

트렉스타의 ‘해즈프리 신발’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신발 끈을 조이고 풀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신발을 신고 신발 뒤쪽의 아랫부분의 롤러를 바닥에 대고 당기면 신발 끈이 조여지고, 벗을 때



트렉스타의 해즈프리 신발. <트렉스타 제공>

는 신발 뒤쪽의 돌출부분을 다른 쪽 신발로 밀착해 눌러주면 끈이 쉽게 풀린다.

트렉스타는 이에 앞서 2008년과 2010년 ISPO 베이징에서 다이얼을 돌려 신는 등산화 코브라와 인체공학적인 신발구조의 네스핏 기술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 SOC건설에 1조3000억 투입

익산국토청 “예산 60%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광주·전남북의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익산국토청은 “새만금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생태하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1조3282억원 규모의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총예산 중 도로사업 예산은 61건에 7939억원이며 하천사업 예산은 126건에 3109억원이다. 익산국토청은 전체 예산의 60%인 7969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국토청은 새만금과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군장대교 등 7개 사업에 959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고군산군도 1·2공구와 신태인~김제(11.9km)를 개통한다.

또 익산 시내 장신~송학(1.2km) 구간을 준공해 올해 개통할 예정인 호남선 KTX와 연계시키고, 완주~순천 고속도로와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오수~갈마 등 3개 사업(323억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천사업은 홍수 등 재해 걱정 없는 치수와 테마형 하천조성사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국토청은 만경강 준포지구 등 27개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1165억원을, 섬진강 요천지구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 50개 사업에 111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고부천유역 침수대책 등 8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만경·동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주민이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설맞이 카드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세배돈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이 대상으로,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국내면세점,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최대 금액 1건(건별 합산 불가)이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 20만원 이상이면 2만원, 30만원 이상이면 3만원의 캐시백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이용고객에게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0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기발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대만리는만리도 아닙니다.
축산소장수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만들수 있는 우리 지역공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엔 앞손들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